

식품수출정보

業 務 部

프랑스, 생선어묵 需要 급증세

— 우리나라 제2위의 供給國, 成分 및 品質에 對한 관심도 제고해야 —

프랑스시장에서 Surimi로 불리우는 생선어묵은 우리나라가 日本다음의 공급국으로 부상되고 있는데, 88년초 프랑스도 이미 국내생산을 개시했고 Surimi의 成分 및 品質에 對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品質改善에 가일층 주력해야 할 것이다.

低價의 생선을 가공해서 게살맛을 내는 생선어묵은 '85년 프랑스시장에 소개되어 420톤이 소비된 이래 '86년 1,240톤, '87년에 2,700톤, '88년 3,400톤으로 그 소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가정용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기업에서도 요리 원료로 대량 소비하고 있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前食用으로 생선어묵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90년에는 그 수요량이 약 6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88년초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수요량의 전망을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88년 3월부터 IFREMER(프랑스 水産物研究所)가 주도하고 관련업체들이 出資한 Scoma라는 會社가

Lorient 지방에서 시간당 150~250kg 규모의 생선어묵 생산을 개시함으로써 수요의 일부를 충당하게 되었다.

• 프랑스의 생선어묵 輸入실적

(단위 : F. FR. 천)

국 별	1986	1987	1988
일 본	44,987	86,288	122,307
한 국	486	8,762	74,874
덴 마 크	65,060	96,920	75,151
캐 나 다	—	476	2,149
대 만	3,257	1,909	563
중 국	1,045	—	496
합 계	169,832	287,861	361,627

註 : ① 프랑스 관세통계에는 생선어묵이 따로 여타 생산가공품을 포함한 것임. 그러나 87년의 경우, 생선어묵의 비중은 중량기준 24%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② 프랑스 생선어묵 수입량은 85년 250 t, 86년 1,385 t, 87년 2천 t 정도로 추정됨.

[자료 : 프랑스 관세청무역통계]

현재 프랑스 소비자들은 생선어묵을 高蛋白·저지방식품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반면 게살맛을 내는 그 성분 및 제품의 위생상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 消費者情報誌인 Quechoisir의 조사에 의하면 맛, 성분, 가격 등의 면에서 생선어묵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생선어묵 소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가격면에서는 천연계가 kg당 F.Fr.94~332인 반면 생선어묵은 F.Fr.79~130으로 저렴하면서도 고단백·저지방 식품으로서 천연계에 별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브랜드중 하나는 위생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또다른 하나는 맛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리나라 관련업체들은 對프랑스 수출 생선어묵의 품질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業界 유의사항

프랑스정부는 생선어묵수입이 급속히 증가하자 '87년 7월 특별시행령을 발표, 이품목의 輸入管理를 대폭 강화했다. 즉 프랑스로 생선어묵을 수출코자 하는 외국제조업체는 프랑스 農業省에서 위생관련 설문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회신및 공장위생 등록인가 신청서를 프랑스 주재 해당국 상무관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식품위생국은 이를 검토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 工場登錄인가 번호를 잠정적으로 부여하고 프랑스 농업성 담당관이 해당생산업체의 현장을 답사해서 설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프랑스 官報에 이를 公告, 수출허가를 취득토록 되어 있다.

日, 초코렛 市場, 輸入品 畵어 增加勢

— 市場규모 15만톤, 지난해 輸入品 2만1천톤으로 年平均 62%伸張 —

日本국내의 초코렛시장에 최근 수입품의 시장畵어가 늘어나고 있다. 日本내 소비량은 85년까지는 연간 약15만톤 정도였으나 최근 輸入品의 시장점유물량이 86年度 8千 t, 87年度 1만3천 t, 88年度에는 2만1천톤(추정)등으로 年平均 62%의 급신장을 보여온 결과, 日本內 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입초코렛의 畵어도 86년도의 5%에서 88년도에는 11%(추정)로 늘어나 향후의 輸入物量 증가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日本內 수입초코렛의 소비에 관한 금후의 업계예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① 초코렛 原料의 약60%를 차지하는 설탕및 乳製品의 内外코스트 차이가 兪高로 인해 대폭 벌어졌으며, 그결과 輸入價가 국내산보다 50%이상 싸며 ② 지금까지 최대 공급국으로 되어 있는 美國으로 부터의 시장개방압력으로 88년 4월부터 수입관세가 20%에서

10%로 인하되었고 ③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화 되면서 고급품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입품의 선호도가 높아진 점을 들고 있다.

□ 業界 유의사항

현재 日本內 수입초코렛의 소비 절대량은 2만1천톤 정도로 이중 약70% 가량이 연말 성탄절전후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전후에 소비되고 있는 특수한 市場持性을 나타내고 있어 日本市場 침투를 위해서는 大量消費시즌을 겨냥한 독특한 판로개척이 필요하다.

특히 금년 1월부터 일본의 경품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적극적인 販促활동을 벌일수 있게 된점에 착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日 청량음료社, 海外위탁生産 확대

— 果汁 30% 캔製品 위주, 100% 製品市場에도 대비 —

日本の 清涼飲料社들은 해외 자회사 또는 해외생산사에 생산을 위탁해서 自社 브랜드의 캔음료를 수입판매하는 움직임을 확대시키고 있다.

日本の 청량음료 수입은 85년까지 1만kl에서 86년 이후 兪高의 영향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87년에는 10만kl가 되었고, 88년에는 21만kl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같은 청량음료의 수입증가는 기존의 유명 청량음료 수입의 증가에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특히 87년 이후부터 시작된 海外委託生産 수입에 10개社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급증하게 되었다.

海外委託生産품의 주류는 캔果汁음료로 주요 특징은 ① 종래의 日本內 생산제품보다 용량이 큰 350ml의 캔제품으로 ② 과즙의 농도는 10%의 日本産과는 달리 30%가 주종이고 ③ 표준 소매가격은 日本內 상품과 동일수준인 100엔대

이다.

日本에서 해외위탁생산 청량음료를 수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급격한 엔高로 인해 수송비 및 關稅를 추가 지불해도 해외생산비용이 더 낮기 때문이다. 알루미늄캔의 코스트는 日本內에서 26엔 정도이나 해외에서는 절반정도면 가능하고 과즙원료와 甘味料도 해외조달이 코스트면에서 보다 유리하다.

이외에도 청량음료의 해외위탁생산수입의 배경에는 89년 4월부터 92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사과·포도·오렌지 등의 과즙輸入自由化에 따른 대책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日本에서 캔음료의 해외위탁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國內生産에 있어서는 100% 유리병 과즙제품의 발매가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消費者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를 반영하고 있는 외에 과즙수입자유화 이후 과즙 100% 제품시장의 급속한 확대전망에 대비한 各社의 自社브랜드 이미징 우위확보 경쟁으로 풀이된다.

노르웨이, 人蔘製品 販賣 급증

—關心 높아져, 금년 500만弗 이상 販賣 예상—

노르웨이에서는 人蔘제품류를 88년 9월 1일부로 醫藥品에서 건강식품류로 분류해서 藥房에서만 판매되었던 것을 일반상점에서 판매를 허용한 이후 수입상들이 각종 人蔘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인들의 人蔘에 대한 관심이 높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노르웨이에 150개 健康食品 판매점 및 1천개 일반상점에서 우리나라産의 人蔘을 원료로 해 스위스에서 만든 人蔘엑기스(브랜드 Ginsama)를 공급하고 있는 Nutana Norge A/S의 Mrs. Randi Iradd 생산과장은 노르웨이인들

이 최근 人蔘에 미쳤다고 말하면서 금년들어 人蔘제품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50%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새로 설립된 人蔘판매사인 Friskus社의 경우도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1주일 판매량이 최근에는 하루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 판매원은 말했다.

人蔘輸入商들에 의하면 금년 人蔘제품의 총판매량은 N.Kr.3천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년간 人蔘제품의 판매량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전까지는 醫藥品이 분류되어 있어 판매가 藥房으로 제한되어 있어 人蔘제품의 판매량은 통계상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극소량이었다.

이러한 人蔘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운동선수가 복용했을 경우 Doping Test시 藥物成分이 검출되는지 여부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일부 人蔘제품에는 Ephedrine성분이 검출되고 있는데, 이는 Doping List에 사용금지된 藥物성분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반적인 Ginsengroot, Extract 등 人蔘제품은 Doping Control시 의심할 만한 어떠한 藥物성분도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健康食品공급업자협회(The Health Cost Business Association of Suppliers) Tom Myhre씨는 최근 5종류의 人蔘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어느 人蔘에서도 Ephedrine성분이나 다른 도핑 藥物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協會員들이 취급하고 있는 人蔘에 대해서 메이커 및 라벨을 부착해서 제품의 質을 보증하고 어떠한 藥物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消費者들에게 홍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 保社部에서는 가짜인삼 및 藥物성분이 포함된 人蔘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人蔘製品을 임의로

수거,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부 料學者들은 88년도에 실제 생산된 人蔘量보다 더 많은 量이 세계적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하고 일부 人蔘제품중에는 人蔘 이외의 다른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한 현지 수입상은 말하고 있다.

스웨덴의 한 研究機關의 人蔘효능에 관한 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作業能力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낮게 해주며 호흡순화를 용이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증가시켜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忍耐力을 요하는 스포츠에서도 人蔘을 복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르웨이에서는 운동선수가 복용했을 경우 약물검사시 醫藥成分이 검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人蔘製品的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쟁이 人蔘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 주고 있으며, 테스트 결과 부정적인 요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오히려 人蔘판매를 증가시켜주고 있다고 한 人蔘수입상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업계의 對노르웨이 人蔘수출시에는 노르웨이당국이 수거, 品質檢査를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며, 만약 우리나라 人蔘의 테스트 결과 부정적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우리나라 전 人蔘제품의 對노르웨이 수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되므로 品質管理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집트, 新規輸出入규정 改正작업 완료

一制限的 車輛輸入 허용등 대폭적 輸入 規制 완화예상一

이집트 Yossri Mostafa 經濟貿易部長官이 3월 6일 이집트 최대 일간지 Al-Ahram紙를 통해 밝힌바에 따르면 이집트정부는 기존수출입

규정의 비현실성 및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輸出入規定 改正작업을 완료, 오는 3월말에 공포할 예정으로 있다.

89년 4월 1일부터 이집트의 對外貿易업무의 기본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수출입규정 중 현재까지 밝혀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집트내 自由貿易地帶를 통한 소비재 수입허가

○ 연간 3만弗 이내의 機械部品은 신용장 개설없이도 수입가능

○ 이집트내 투자업체의 생산설비 관련제품 수입시 銀行融資로 수입가능

○ 종래 신용장 개설자가 선적서류의 선적일자보다 필히 앞서야 한다는 조항을 선적물품의 이집트港 도착일 이전에만 신용장이 개설되면 되는 것으로 개정

○ 食品類 및 醫藥品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첨부 의무화

○ 생산 및 서비스관련업체 또는 단체의 공용목적 차량수입을 개별적 심사를 거쳐 수량제한없이 수입허가

○ 개인용 선박모터수입 및 재판매 자유화

○ 개인용 텔레팩스기 輸入自由化

○ 스포츠클럽 및 단체의 장비·운동복·스포츠靴 수입허가

○ 電氣電子제품·농업용트랙터 등의 품목은 에이젠트 명의로 A/S센터가 있어야 수입가능

○ 기타 수입금지품목들은 변경사항 없음.

□ 評 價

이집트정부는 기존수출입규정의 비현실성과 불필요한 수입규제조항 등을 감안, 약 5~6개월에 걸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수출입업자들의 요구사항, 자국산업 보호 및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海外投資유치 활성화 등의 여러측면을 검토한 끝에 신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KOTRA, 해외시장)